

전남 개발사업 올스톱 위기

내년 복지예산 지방세 수입 초과...재정운용 비상

기초노령연금법 공포 따라 800억 추가 부담

정부가 24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노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남에서만 매년 2천700억 원대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전남도와 일선 시·군은 각각 400억 원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전남도의 이같은 추산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정부가 70%,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각각 15%씩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업무 성격이 짙은 복지 재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씩 부담하는 현행

제도에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노인 인구 비율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을 60~10%까지 차등화하는 등 다른 복지 예산보다는 제도적으로 진일보했으나 지방비 부담이라는 관례는 그대로 유지했다.

노인과 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전남도의 경우 복지예산 과다로 인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잃은 지 오래다. 전남도의 2007년도 총 예산 3조9천1천123억 원으로 3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전체 복지예산 중 27.6%인 3천733억 원은 도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부담액은 전남도가 급년도에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총액 3천193억 원의 96.2%에 육박한다.

▲기초노령연금=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1인당 매달 8만9천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노인들의 빈곤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한 전남도의 경우 전체 65세 이상 노인 31만7천명의 80%인 26만여명이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인해 400억 원대의 부담이 추가로 생길 경우 복지 예산이 지방세액 전체를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전남도는 이처럼 기초노령연금법이 지자체의 부담을 전제로 한 현재의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압박 현상이 극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대부분이 저소득층 기본 생계 보장에 투입됨으로써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유치를 비롯한 중·장기적 지역발전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등 복지예산 부담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고보조를 차등지원해 조기 시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복지사업비 국고보조를 상향조정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국고보조사업 전환 ▲복지업무의 지방양자재 등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오늘 재·보선...꼭 투표합시다

무안·신안 국회의원 등 광주·전남선 9명 선출

17대 대선의 민심 향배를 가늠할 4·25 재·보궐선거가 25일 광주·전남 8개 선거구를 포함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국회의원 3명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56명(광주·전남은 9명)의 당선자를 뽑는 이번 재·보선은 그 결과에 따라 범여권의 통합 움직임과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경선 경쟁 등 대권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4면>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광주·전남은 모두 178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재·보선지역 유권자는 광주 18만1천293명, 전남 17만2488명 등 35만1천541명이다. 당선자 유권은 빠르면 밤 11시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분석한 막판 관세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선의 경우 무안·신안, 대전 서울, 경기 화성 등 3곳에서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한나라당이 각각 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무안·신안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호남권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향후 범여권 통합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현재 관세 대로라면 '재보선 불패 신화' 붕괴에 따른 당지도부 인력론 등 후폭풍이 시달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재보선 결과가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공식선거 마지막 날인 24일 경합지역을 돌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24일 박상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당 소속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무안을 5일 장터에 총집결, 마지막 집중 유세를 갖고 김홍업 후보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전여욱 최고위원은 무안을 찾아 강성만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고, 무소속 이재현 후보도 박찬중 전 의원 등의 지원 아래 무안읍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4일 선관위 직원들이 신안군 흑산면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3천942명의 유권자가 살고 있는 흑산면에는 모두 9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다.

/대흑산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화수도 조성위원회 7명 사퇴

어제 靑에 사직서 제출...송위원장 해촉 파문 확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민간 위원 13명 중 7명의 광주지역 위원들이 송재구 조성위원장에게 대한 견

적 해촉에 반발, 24일 청와대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3면> 최협(전남대 교수) 조성위원회 부

위원장과 은우근(광주대 교수) 간사 등 6명의 광주지역 위원들은 이날 오후 송 위원장의 전격 해촉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송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선임된 민간위원으로서 송 위원장이 해촉됨에 따라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날 중으로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남상규(부국철강 대표) 위원은 최협 부위원장의 전화 통화를 통해 사직서 제

출에 동의했다.

최협 부위원장 등 7명의 민간 위원들은 빠르면 25일 중 자신들의 사퇴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협 부위원장은 "우선 도의상 대통령 소속 기구의 위원장이 해촉된 상황에서 임기를 함께 한 위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특히 문화수도 조성사업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송 위원장이 해촉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조만간 신임 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임 위원장이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어차피 새로운 민간위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모든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일보 은펜상' 2007년 3월 수상자 김창균 씨

'광주일보 은펜상' 2007년 3월 수상자로 김창균(40·광주북성중 교사)씨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사는 지난 3월 20일자 'I Love My student'란에 '두발규제, 억압만은 아닐거야'라는 글을 통해 두발 규제가 획일적 순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능력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는 학교 교육의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김 교사에게는 광주일보 마크가 새겨진 은촉 만년필을 드립니다.



주가 연일 최고치...1550선 돌파 ▶11면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중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총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암총보실 1588-5051 ▶ T.(061)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 미술·작문·논술(예선)
5월1일~5월19일 접수

▶ 현장예선실기대회
5월9일까지 접수

[5월11일, 금호패밀리랜드]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2-0541 · 222-8111

한화종합화학

프리미엄 발코니창,
한화 홈샤시 뉴스페셜 탄생!

발코니를 새롭게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젠 한화 홈샤시 발코니아 뉴스페셜을 찾아주세요
더욱 새로워진 디자인과 품격있는 외관으로
당신의 생활까지 환하고 아름답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한화 홈샤시 **발코니아** 뉴스페셜

고급스러운 유색 레일 넓어진 공률부 고급형 프레임 스토퍼 세련된 핸들 디자인

환하게! 아름답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

光州日報 창사 55 1952-2007

프리미엄 발코니창,
한화 홈샤시 뉴스페셜 탄생!

발코니를 새롭게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젠 한화 홈샤시 발코니아 뉴스페셜을 찾아주세요
더욱 새로워진 디자인과 품격있는 외관으로
당신의 생활까지 환하고 아름답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한화 홈샤시 **발코니아** 뉴스페셜

고급스러운 유색 레일 넓어진 공률부 고급형 프레임 스토퍼 세련된 핸들 디자인